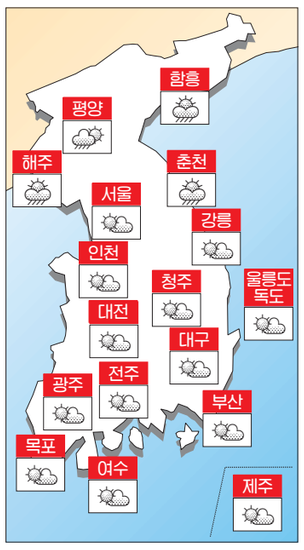
들녘 늦가을 풍경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맑은 뒤 흐려지겠다.

10월 28일 (음 9월 7일) 날씨

광 주	8~21℃
목 포	9~20℃
여 수	14~21℃
완 도	10~22℃
구 례	5~23℃
해 남	6~23℃
장 흥	6~23℃
고 흥	8~21℃
순 천	5~22℃
영 광	8~20℃
진 도	9~23℃
전 주	7~21℃
남 원	4~21℃
정 읍	6~20℃



서해남부 앞바다
남서~서풍
파고 0.5~1.5m

서해남부 먼바다
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
남서~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먼바다
북동풍
파고 0.5~1.0m

▲해뜸 06:49 ▲해짐 17:43
▲달뜸 12:33 ▲달짐 22:02

목포 밀물 05:10 18:11 썰물 10:28 23:32 여수 밀물 12:42 --:-- 썰물 05:42 19:1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9(일)	30(월)	31(화)	11/1(수)	2(목)	3(금)
날 씨						
최저/최고	11/19	8/20	8/18	8/19	7/19	7/18

서남해안 비 조금

광주·전남, 내륙지방엔 서리도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28일은 맑은 뒤 밤 늦게 흐려지겠다"고 27일 예보했다. 영광·무안·함평 등 서남해안 지역에는 5㎜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에는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일인 29일에는 오전에 다소 구름이 끼겠지만 오후엔 개겠다. 아침 최저 기온 8도, 낮 최고기온은 22도로 평년과 비슷한 온도를 보이겠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대통령 선거 나오면 살해"

이명박 前 시장 협박한 40대 구속

서울 종로경찰은 27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집에 전화를 걸어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김모(48)씨를 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1일~25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이 전시장의 집에 하루 2~3차례씩 10여차례 전화를 걸어 집에 있던 가정부 장모(61·여)씨에게 '죽여버리겠다'거나 '교회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다.

김씨는 전화 통화하던중 총소리와 군가 등이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주며 위협했으며 집 주변 슈퍼마켓에서 이 전시장의 집으로 떡과 라면 등의 물품을 배달시키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 전시장이)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협박 전화를 했다"고 말했으며 김씨의 집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김씨는 정신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으며 진술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기도 해 경찰은 금명간 김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검찰 "신정훈 나주시장 내주 소환"

광주지검 공안부(부장판사 이형철)는 28일 "신정훈 나주시장을 다음주 초에 소환해 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철 부장검사는 "신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보리수매, 야적 쌀 수매 등 농민들에 대한 각종 보상을 하면서 다른 시·군에 비해 수매가격이 높았다는 고발이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 부분이 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 또는 기부행위인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행사인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나주시의 '주몽' 드라마 세트장 건립과 관련,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세트장 건립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세트장 건립 추진과정에서 농지법·산림법·문화재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한국 첫 '갯벌 해설사' 조경란씨

"체험행사때 갯벌생물 잡지 마세요"

10만명 넘는 탐방객에 순천만 소개

"아이들에 깨끗한 환경 물려 줘야죠"

산에 숲 해설사가 있고 관광지엔 관광 해설사가 있다면, 갯벌에는 '갯벌 생태안내인'이 있다. 이들은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고, 무분별한 훼손을 막는 ' 갯벌 수호신'이다.

황금빛 갈대가 따사로운 햇볕 아래서 살랑대는 27일 오전 순천만 '장산 갯벌체험장'. 유치원생 11명이 끝없이 펼쳐진 갯벌 위에 꿈지럭거리며 기어다니는 수천 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 조그만 친구들이 보이죠? 짱뚱어예요. 얘들은 다음달이면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개구리처럼 겨울잠을 자러 집으로 가버리거든요."

조경란(여·38·순천시 대대동)씨의 설명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아이들은 잠시 조씨의 얘기에 귀 기울이다가, 이내 손을 뻗어 새끼 짱뚱어를 잡으려 한다.

해수부 양성과정 수료

조씨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말린다. "얘들도 엄마가 있어요. 잡으면 엄마가 슬프겠죠?" 고사리 같은 아이들의 손이 어느 틈에 호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간다.

조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갯벌생태 안내인이다. 갯벌을 건강하게 보살피고, 그 소중함을 알리는 것이 그의 임무다. 최근에는 더 중요한 과제가 주어졌다. 갯벌체험을 하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갯벌을 망가뜨리는 것을 막는 것. 국립수산과학원이 부안 등 갯벌생태체험장을 조사한 결과, 갯벌체험 행사를 한 뒤 대형 저서(底棲)동물의 14.8%가 죽고, 한 달 뒤에는 51.1%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체험행사가 갯벌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던 조씨가 갯벌을 돌보겠다고 나선 것은 2년 전. 신문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불현듯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순천대 평생교육원으로 달려가 '자연환경해설' 과목을 수강 신청했다.

그리고 6개월의 과정을 마친 조씨는 순천만 자연생태관의 자연환경해설사가 됐다. 지금껏 10만 명이 넘는 탐방객들에게 순천만 자연환경을 소개해 왔다.

▲순천만=남해안의 여수반도와 고흥반도 사이에 있는 만(灣)이다. 전체면적은 847만 평이며, 이중 30만 평이 갈대밭이다. 흑두루미(천연기념물 제 228호) 등 200여 종의 조류가 관찰되고 있고, 12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람사(Ramsar)습지'로 등록돼 보호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 사상 최초로 개설한 '갯벌생태 안내인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다. 3박4일 동안 전북 부안군 격포리에 마련된 강습소에서 '갯벌체험 안내' 등 19과목을 공부했다. 국내 유명 교수들이 지도하는 강도높은 이론(16시간)과 실습(16시간) 과정이었다.

"갯벌은 생태계의 고리"

조씨를 포함한 52명(광주·전남 8명)의 학우(學友)들은 이렇게 해서 국내 최초의 '갯벌생태안내인'이 됐다.

"갯벌생태체험을 조개나 게를 잡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오는 탐방객들이 너무 많아요. 갯벌이 바다를 살찌우고, 나아가서는 지구 존속을 위한 중요한 생태계 고리라는 생각을 하도록 가르치는 제 일이죠."

하지만, 일부 탐방객은 바다 생물 채취를 못 하게 하는 조씨에게 욕설까지 해대는 경우가 있어 괴롭다고 한다. 그래도 조씨는 욕 한번 먹고 짱뚱어 한 마리 살릴 수 있다면 '남는 장사'라고 생각해, 용감하게(?) 막는다고 말한다.

조씨는 "아이들이 자라 '엄마의 역할'이 끝나면, 갯벌에 대해 더 공부한 뒤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국내 최초 갯벌생태안내인 조경란씨가 순천만 '장산 갯벌 체험장'에서 견학 온 아이들에게 갯벌과 서식동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순천만=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박물관 승격

내년 2월, 직제 개편

문화재청 산하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이 '국립해양사박물관(가칭)'으로 확대 개편된다.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은 27일 "아직 공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내년 2월께 박물관으로의 승격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급에 해당하는 해양유물전시관장은 직제 개편과 함께 고위공무원단(1~3급)에 들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학예연구실·관리과 2개 과로만 운영돼왔지만 수중발굴과·보존과학과 등 2개 과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인 해양 유물 발굴과 보존을 할 수 있게 됐다. 정원은 9명이 늘어난 46명으로 조정된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국내 유일의 해저 유물 전시관으로 해양 유물 발굴도 해왔다. 지난 75년 신안 앞바다에서 '신양보물선'을 발굴한 것을 계기로 건립된 전시관은 96년에는 무안 도리포 앞 바다에서 상감청자 등 고려시대 유물을 인양하며 주목받았다.

전시관 측은 해저 유물 발굴·전시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이라는 이름이 규모나 역할에서 수동적이라는 오해를 받는다며 박물관으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해왔다.

지난 1994년 12월 개관한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은 연건평 4,076㎡, 부지 3만 2,357㎡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구성돼 있으며, 고 선박과 문화재 등 총 2천 여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어린이 유사강간 최소 징역 3년

음란 촬영물 배포·상영도 처벌

개정 성폭력법 시행

13세 미만 어린이를 유사 강간하거나, 장애인 보호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종전 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률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집어넣거나 어린이의 성기에 손가락 등 이물질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면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어린이 유사강간은 '강제추행' 범주에 넣어 1년 이상의 징역과 500만~2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했으나 이번에 이를 대폭 강화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시설에 묵고 있는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종전처럼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성폭력법으로 더욱 강하게 처벌하게 됐다.

새 법률은 이밖에 교정시설 및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수용자를 추행했을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의 범위를 조정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됨으로써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재판 관련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면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던 인터넷·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경우 새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음란 촬영물을 배포·판매·임대·전시·상영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으며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가중처벌된다.

/연합뉴스

즐거운 자활한마당 27일 오전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2006자활 한마당' 행사에서 500여명의 자활근로자들이 초청가수와 함께 즐겁게 한때를 보내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김흥수씨에 1천만원 수수

김영광 전 검사 징역 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비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검사로 재직하던 작년 1월과 3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던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나우찬 〈6961〉 김종두

부실 벤처 지원 관련

이근경 부지사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7일 부실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1조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감사원 고발을 당한 이근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보) 이사장(현 전남도 정무부지사)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신보가 벤처업체 보증액을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인 것은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어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도 배임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감사원은 기술신보가 2001년 4월 2조 2천122억원 규모의 P-CBO 보증 계획을 세운 뒤 목표를 채우기 위해 부실 벤처까지 지원, 결과적으로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 전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작년 6월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여천NCC 파업

보름만에 종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노조의 파업이 파업 시작 15일 만에 종결됐다.

여천NCC노조는 사측과 임·단협을 한 결과, 사측이 제시한 제1공장 증설 사업 격려금 300만 원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천NCC는 노조 파업이 종결됨에 따라 그동안 2조1교대로 운영해 오던 비상 근무체제를 27일 오전부터 4조 3교대 정상 근무형태로 전환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공기 자동차 개발" 76억원 가로채

쌍나팔

○…공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개발했다고 속여 4천여명의 주식투자자를 모아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

○…서울 광진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공기 자동차'를 미끼로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뒤 주당 액면가가 5천원인 비상장 주식을 10만원에 팔아 7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안모(30)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모(63)씨 등 2명을 지명수배.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전기 자동차를 공기 자동차인 것처럼 꾸며 시연회까지 열었으며 전 주한 이스라엘 대사 N씨 등 유력 인사를 홍보 인사로 내세우고 홍보물에 허위 계약서를 게재해 사람들을 현혹했다고. /연합뉴스